동경 대도시권에서의 도시농업의 재편
-퇴직자·고령자의 지속가능한 활동으로서-

수도대학동경
도시환경과학연구과
키쿠치 토시오

용어 설명

신전(新田) : 새로 개간한 논
신전 개발 은 제방·간척·매립에 의해 경작지로 개발하는 것

생력적(省力的) :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 따위가 촉진되어 노동력이 줄게 됨

포장 (圃場) : 정비의 한 방법, 경사지의 협소한 계단식 논 등을 여러 개 모아 면적을 넓히거나 형상을 가지런히 하는 것임.

단경기(端境期) : 철이 바뀌어 햇것이 나오는 시기

JA : 일본의 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

계통출하(系統出荷) :
농·축·수산물 등을 각각 소속 협동조합인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의 유통체계를 통해 출하하는 것

원농(援農) : 볼런티어로 농사일, 농원체험 ,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는것

카타리부(語り部) 상고 시대에 大和 조정에 출사하여 신화·전설을 외어 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무로 삼았던 부족

목적

동경 근교의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를 사례로 하여, 퇴직자·고령자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기반한 도시농업의 재편과 농촌 공간의 상품화의 여러 가지 양상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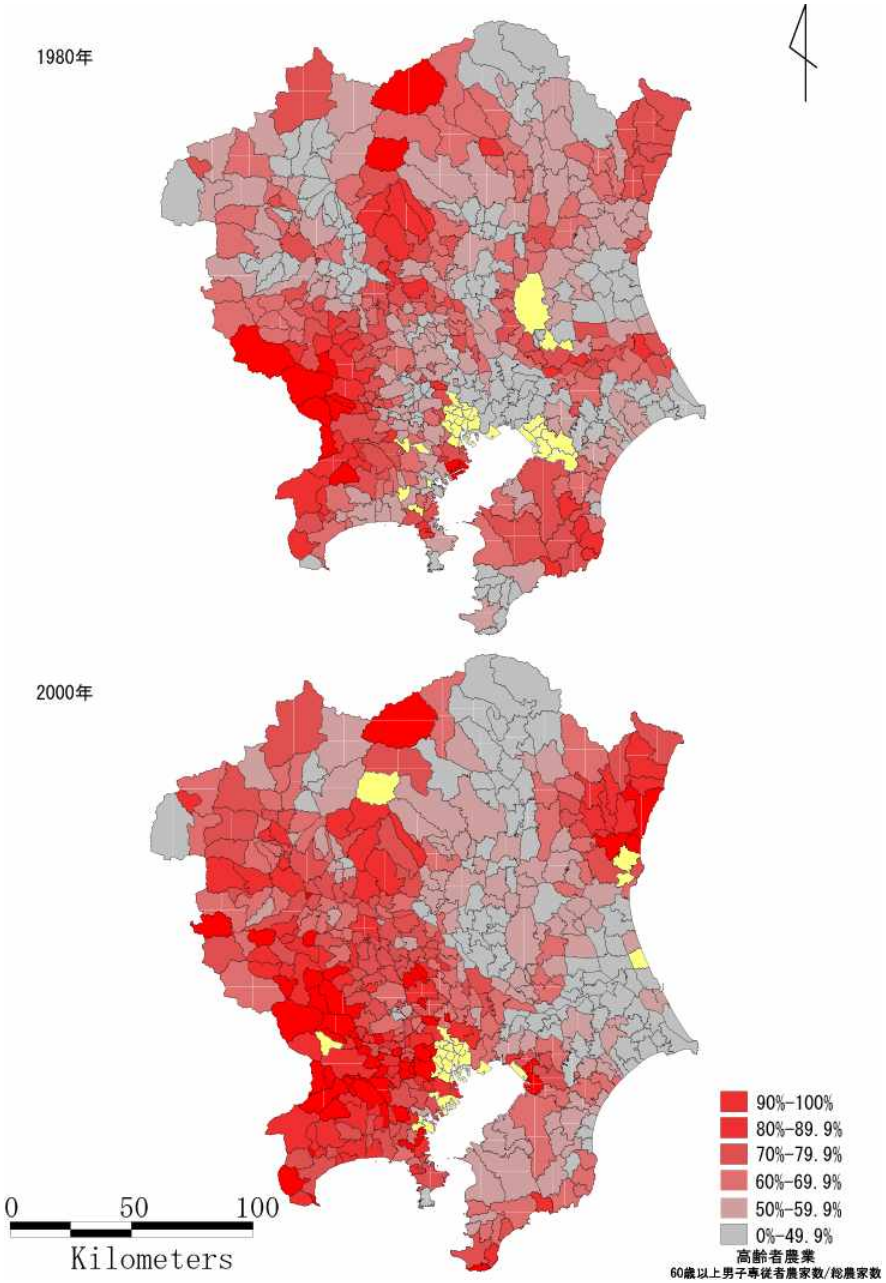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

- 근세의 신전(新田)개발로 무사시노(武蔵野) 대지의 농지화

- 지역 농업이 밭농사에서 도시 근교 농업, 그리고 도시농업으로 변화됨.

- 농가나 농지가 집중, 잔존하며 식목이나 아채, 과수, 화훼, 축산물 등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지

→도시농업의 새로운 역할에 입각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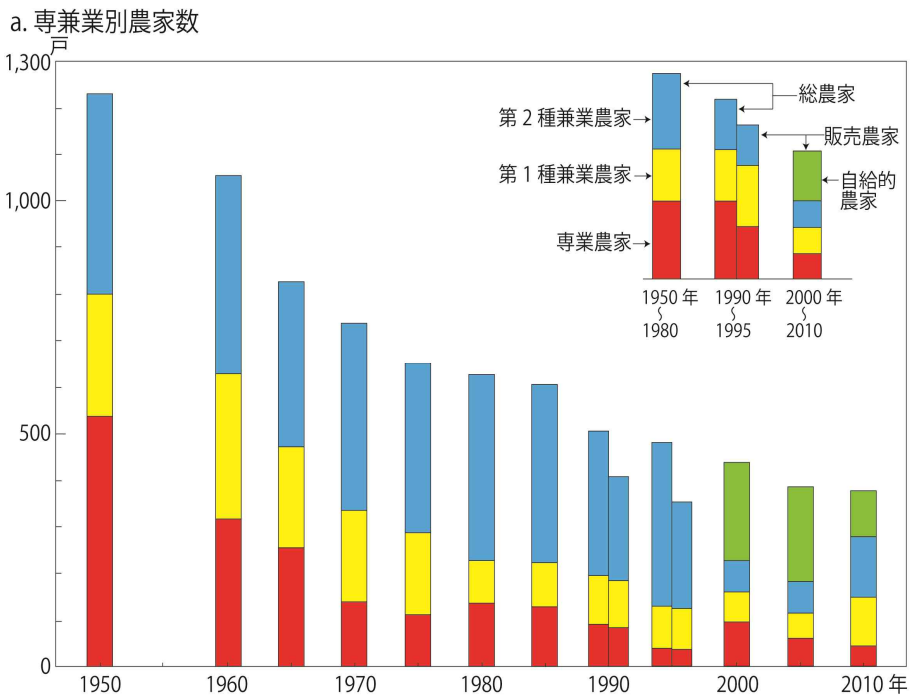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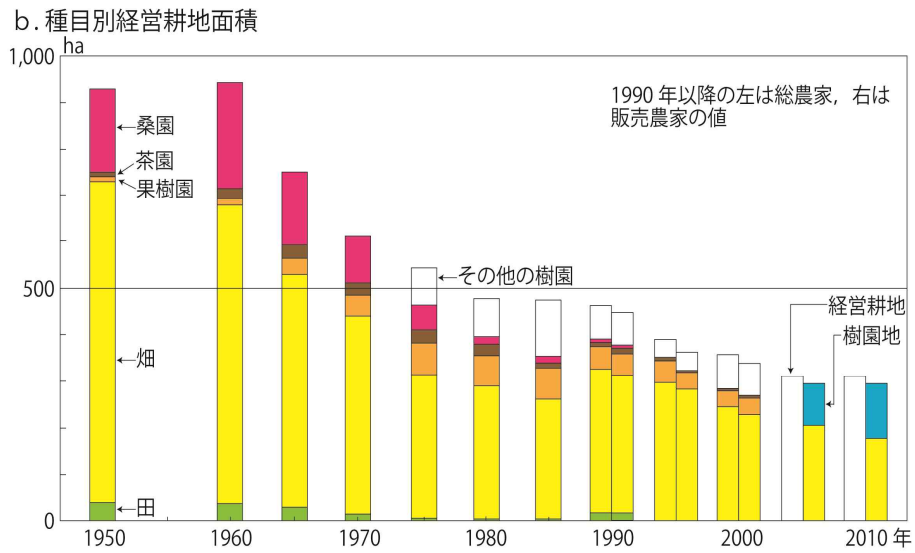
일본의 고령화 지역의 유형

-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소화·고령화)
- 산촌진흥법·과소법 등의 구제 노력 → 과소화·고령화·소득 격차 등을 막을 수 없음(중산간 지역 문제)
- 고령자 농업의 확대(좌측 그림) →농업 노동력의 저하 · 휴경지의 확대·토양 침식의 증대·토지의 열악화 · 환경문제

→ 과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지역 , 대도시 근교에도 고령자 농업이 확대

타치가와시의 농가 수와 농지의 변화





①농가의 수 :

→1960년경까지는 전업농가나 제1차 전업 농가가 많았음.

→1965년부터 1990년에 걸쳐서 겸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1990년 이후로는 농가수의 감소가 둔화 되고 、전업농가나 제1종 겸업 농가가 유지됨 (고령화나 도시 농업의 재편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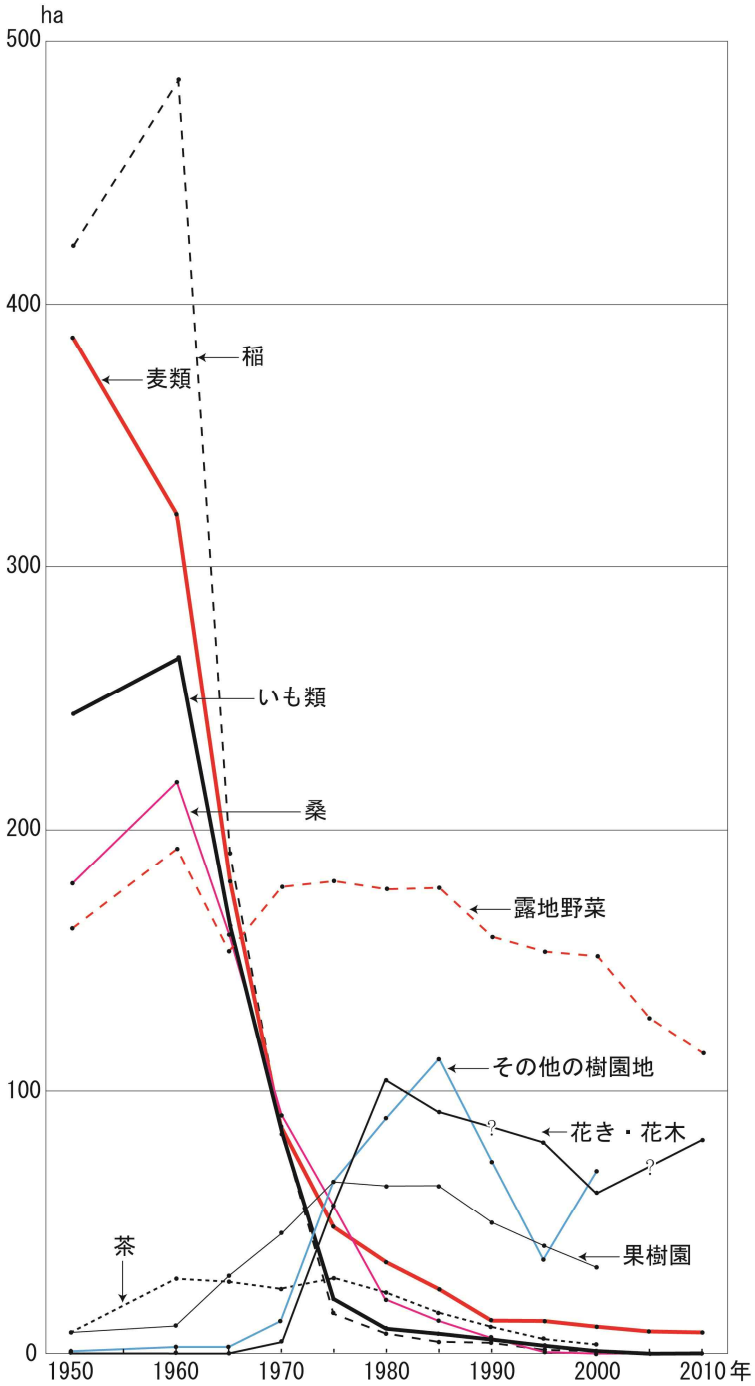
→1990년 이후 인증농업인 (경영체) 증가 (농가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

②종목별 경영 농지 면적 :

→1960년 이후 경영 농지 면적이 급속하게 감소 (도시화와 관련)

→대지(台地)의 토지 조건에서 밭과 과수원 토지의 토지 이용이 중심

→1970년대 이후 고령화나 농업 노동력의 저하로 생력적(省力的)인 농업적 토지 이용(수목・ 묘목생산)의 확대



타치가와시의 작물 재배 면적 추이

①1960년까지 : 양봉, 밭벼와 맥류의 재배에 감자류와 노지 야채를 조합 한 농업

②1970년 이후、밭벼、맥류、뽕나무의 급감→노지야채、화훼·꽃나무、과수、정원수·묘목의 증가 : **도시 근교 농업 의 발달**

③재배 작물의 다양화와 소규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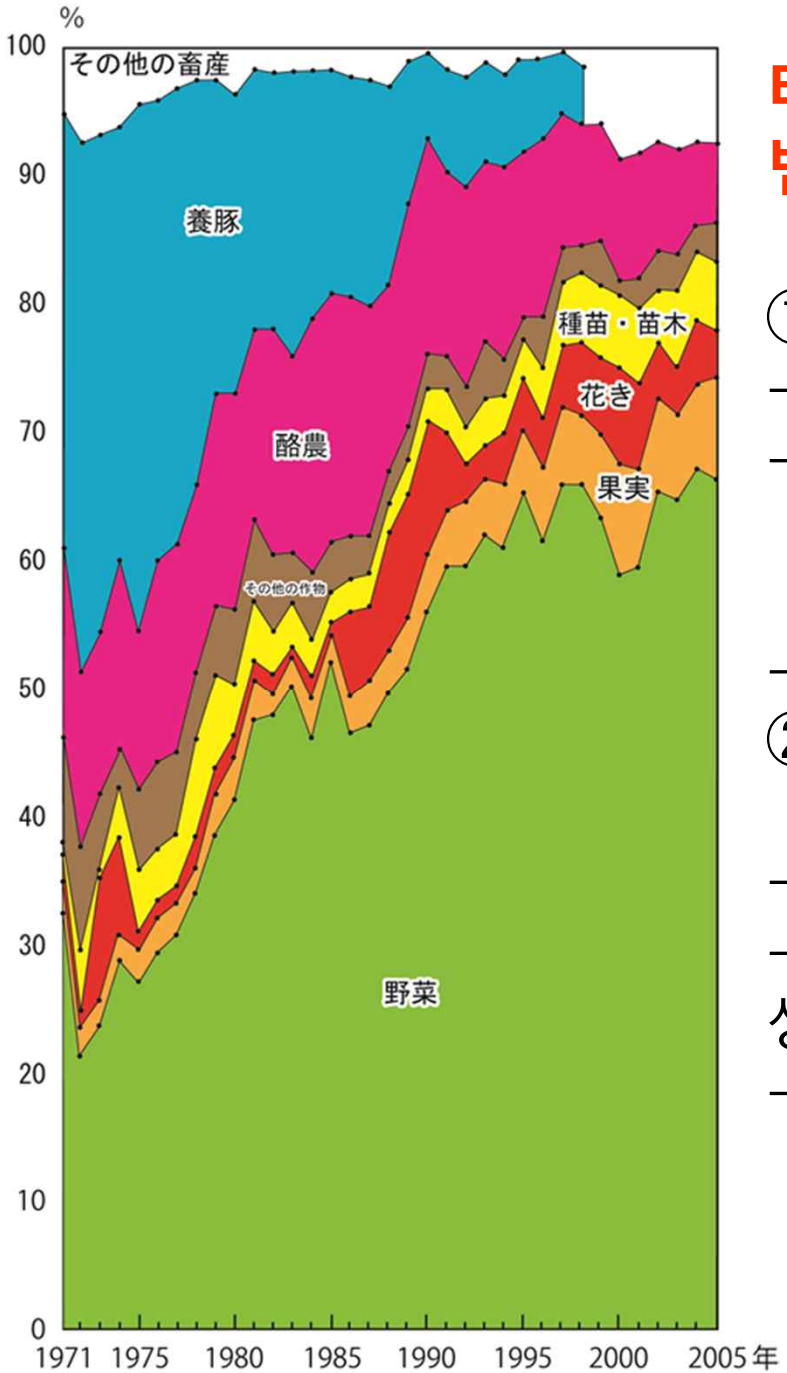
→이런 저런 작물을 조금씩 재배함

(다품종 소량생산 과 다모작화) :

도시농업의 발달(고령자 농업에 적합)

→저렴하고 대량으로 규격화된 농산물이 요구되는 대도시 시장에 맞지않는 농업생산 형태 : 지역 시장이나 농산물 직판장 등의 출하 형태가 발달

(고령자 농업의 직판장 발달)



타치가와시의 농산물 생산액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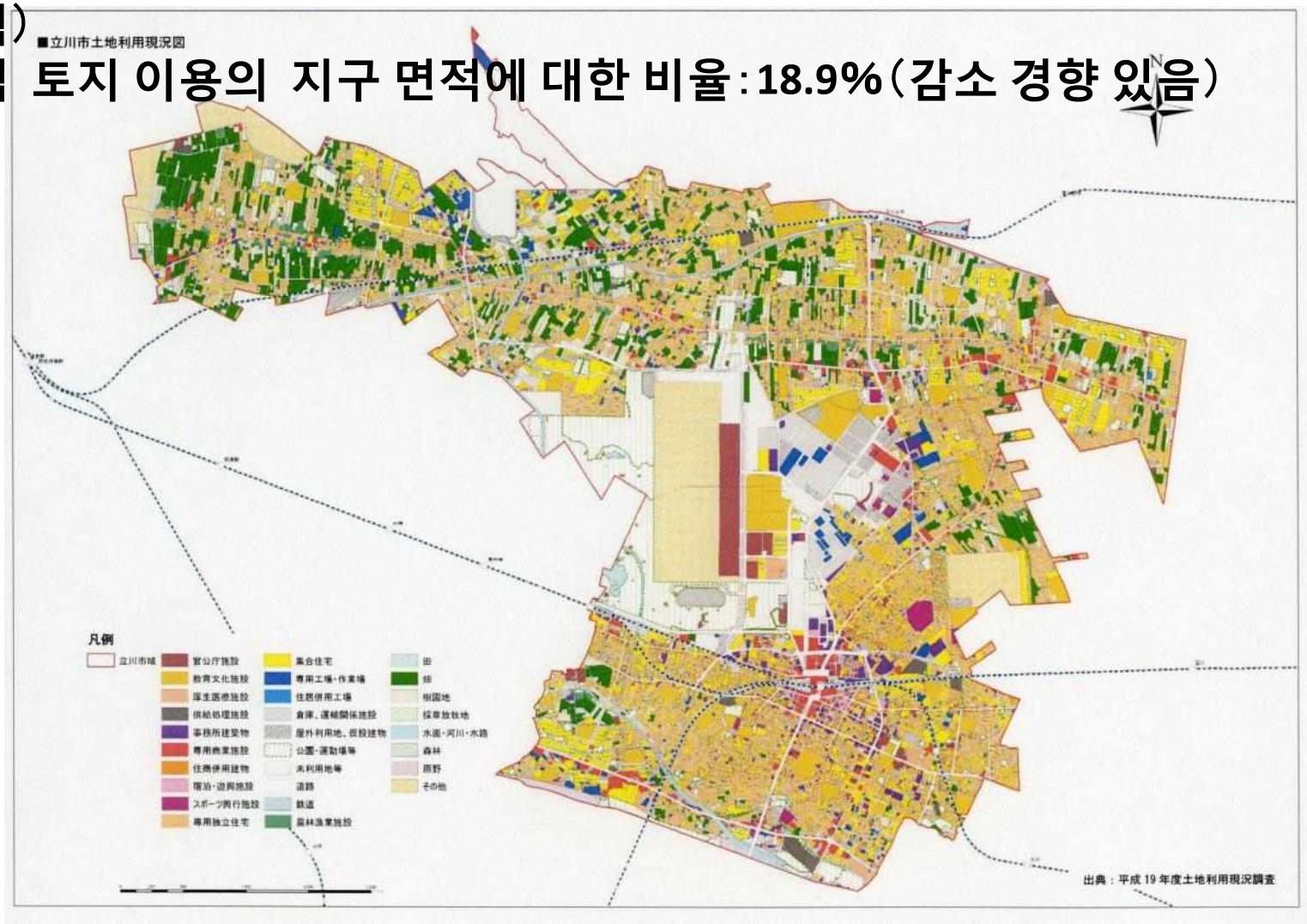
①주요한 상품 생산 부문
→1960년대:양봉(경제적 이윤 쇠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낙농과 양돈(택지화와 함께 축산 공해 문제로 인해 쇠퇴)
→1990년대 이후:야채 생산
②2000년대 이후:야채 구성비의 부진 (침체)
→고령자나 제2종 겸업농가의 증가
→생력 작물의 재배(정원수나 묘목 등)로 생산녹지(농지)의 유지
→농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하는 야채 판매(다품종 소량생산, 고령자 농업은 농산물의 소상권(소 점포)으로 대응)

타치가와시 토지 이용(2009년)

농업적 토지 이용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도시지역 북부의 오우메(青梅) 가도를 따라 위치하는 스나가와 지구

스나가와 지구:근세에 새로 조성된 신전 촌락(대도시권의 도시농업지역으로 평가됨)

농업적 토지 이용의 지구 면적에 대한 비율:18.9%(감소 경향 있음)



타치가와시 생산 녹지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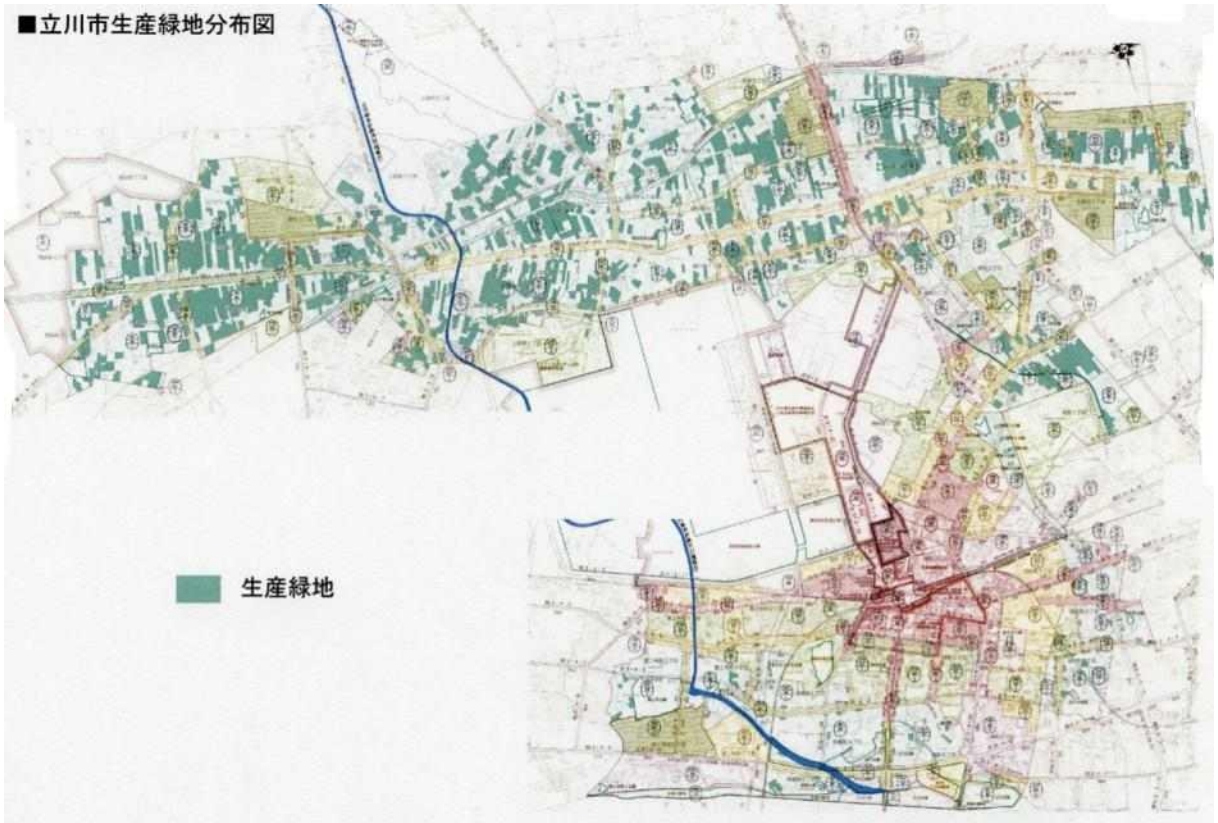
①생산 녹지 : 대도시의 농지 보전 시책(토지 과세의 면제와 유예)

②생산 녹지율(생산 녹지 면적 /시가화 구역 면적)은 도시 지역 북부에서 16.8%로 탁월함

→도시 지역의 농지나 농업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농산물직판장

→소비지에 인접하고, 소비자(도시주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농업생산

→도시주민의 도시농업이나 농지에 대한 이해(타치가와시의 대시민 앙케이트)



동경도 농산물 직판장의 입지 현황

(2010년 농업 센서스 – 촌락 카드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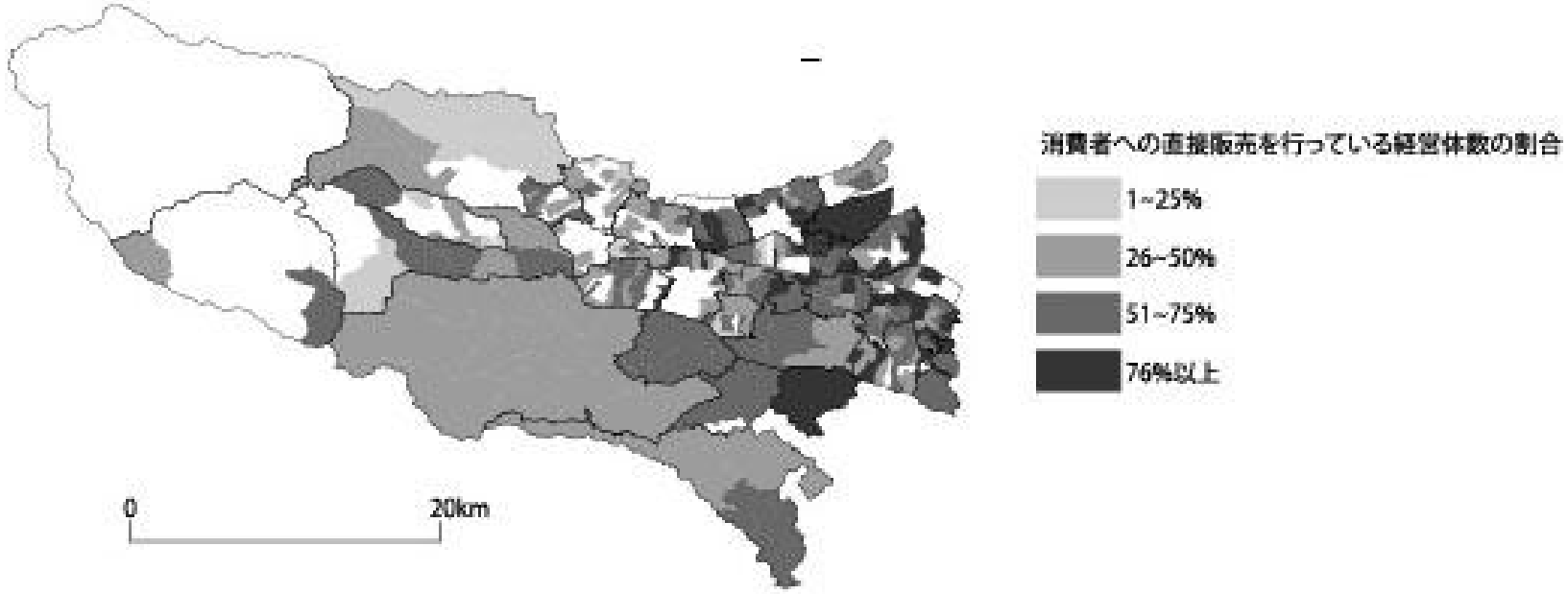
①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비율

→동경도의 23개 특별구의 주변 녹지와 인접지의 76%이상으로 높음

→도시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JA등을 통해 공동출하가 많아지게 됨) : 농산물 직판장은 도시농업을 지지하고 있는 유통 형태

②타치가와시의 북부(스나가와 지구) : 직판장을 담당하는 다수가 고령농가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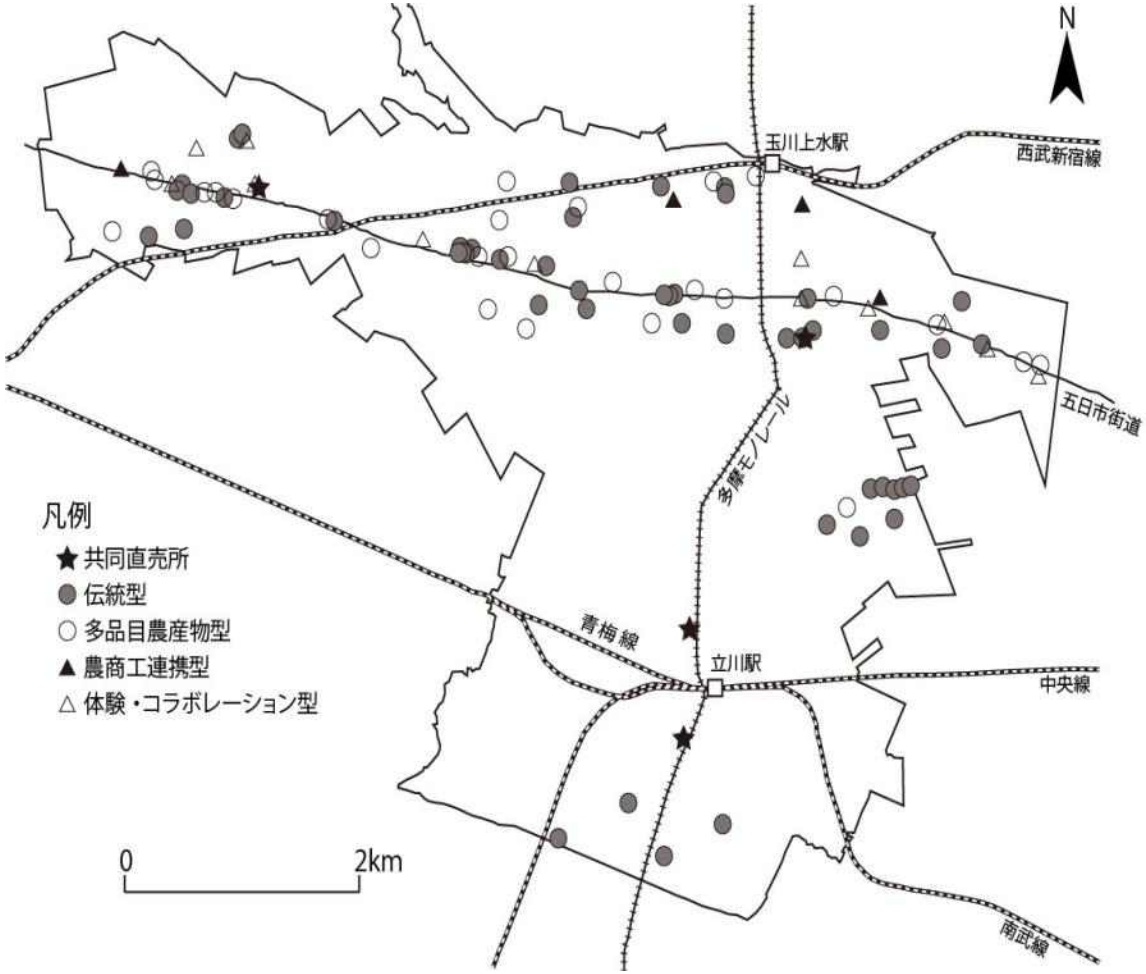
51～75%로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함(직판 형태가 농산물 판매의 중심)



타치가와시 농산물 직판장

①4개소의 공동 직판장
→각각의 공동 직판장의 구성 농가수
(개인 경영을 제외하고 북쪽으로부터
8호、23호、30호、88호）
→개인 농산물을 각자 가져와서 진열
하여 고령자 농업에는 맞지 않음
→개인 경영의 직판장이 적은터라
구성 농가는 많음
②개인 경영의 직판장;93개소
（스나가와 지구에는 87개소）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하는 농가의
비율 :62%로 높음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정성스럽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령자 농업에
적합함
→개인 경영의 직판장 4개로 분류
가능함(제공 품목의 많고 적음,
타업종이나 타 상품생산과의
조합으로부터 판단)

타치가와시 농산물 직판장(93농가)의 유형과 입지



①전통형: 농산물 단순 판매、짧은 판매시간、적은 품목 、긴 단경기(端境期)(49호)

②다품종 농산물형 : 도시주민의 니즈를 반영, 많은 품목 구성, 다양한 판매 방식(28호)

③농상공 연계형: 다양한 농산물 판매, 가공품 생산 · 판매 , 농가 카페 & 레스토랑 경영 (4호)

④체험·콜라보레이션 형: 직판장의 경영과 농산물의 생산 체험 운영 (12호)

①전통형의 농산물 직판장

고령자 농업에 적절한 농산물의 판매 방법(소규모 농업, 다품목 소량생산, 연간 농업 노동의 생력화와 표준화)
→무인 스탠드형 직판장, 또는 자동판매기형의 직판장(인근 주민과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입지)
→판매 품목이나 양은 농가의 사정에의해 결정(무리하지않는 농업: 삶의 의욕이나 농지를 보전하려는것이 궁극적인 목적)
→부정기적인 영업시간과 영업일(영업일은 주 2회 또는 3회로, 오전만)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의 농산물 직판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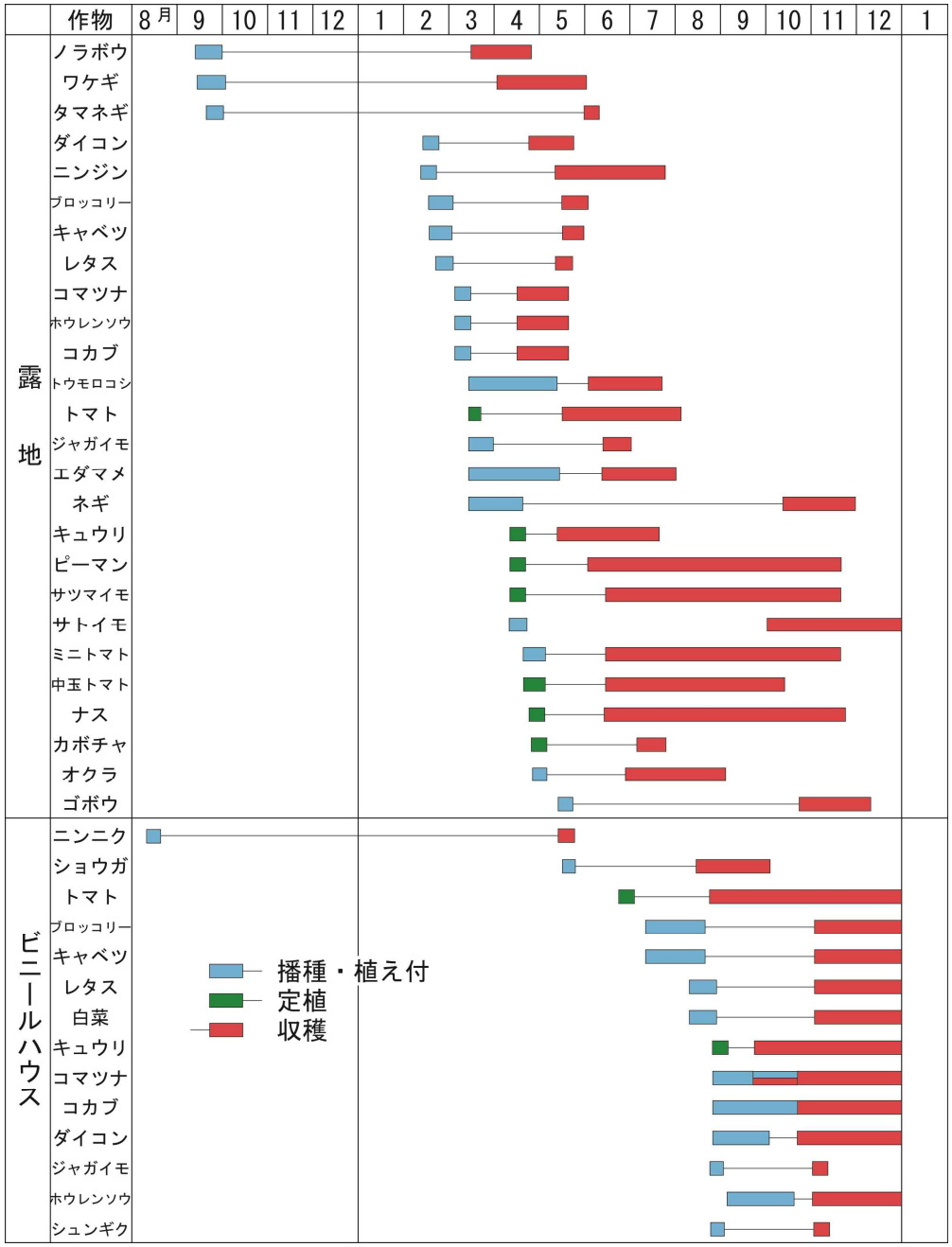
① 전통형 직판장 경영이 최초임
(고령자농업에 적합)

②전통형은 농가의 고령화로감소 경향

③전통형 직판장 경영 농가 중에서 농업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다품목 농산물형, 농상공 연계형, 체험·콜라보레이션형으로 이행

④ 직판장 경영을 어떤식으로 할지에 관해서는 농업후계자의 사고방식이나 의사 결정에 좌우됨

⑤농상공 연계형은 가족 경영의 분업체제가 확립된 농가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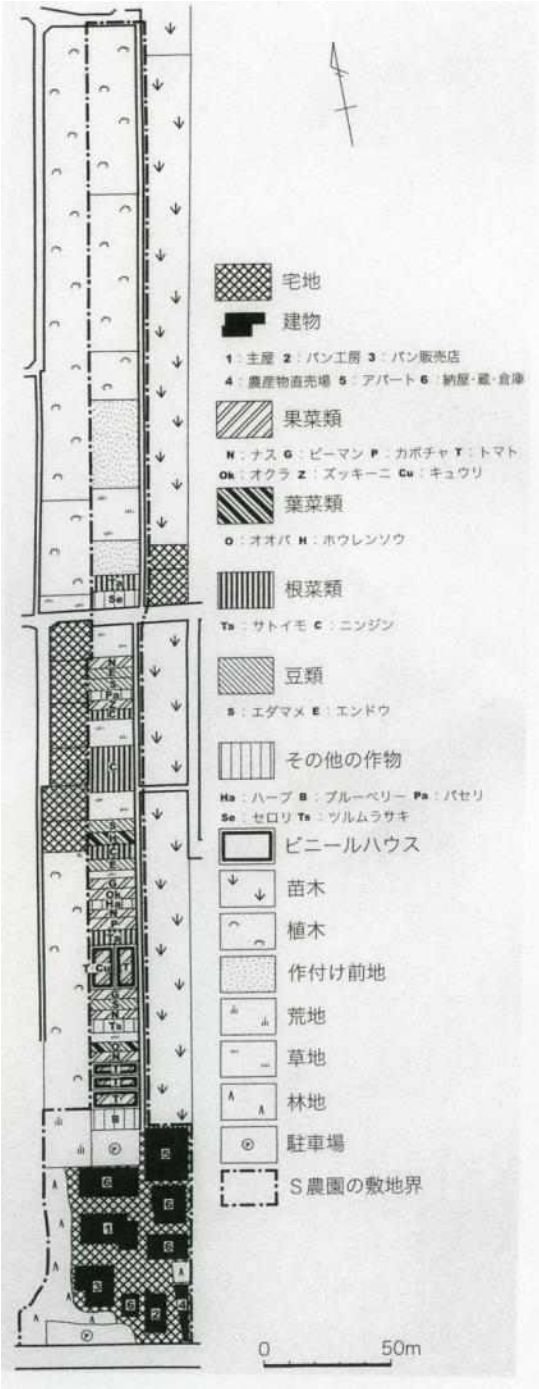


②다품목 농산물 형 사례

- **농장 규모 :** 택지 지구에 연계 한 포장 (圃場) 54a와 약간 떨어진 장소의 포장된 20a
- **농업종사자**: 경영주(46세)가 전담,부친(69)이 보조、모친(64)은 직판장 판매원
- **농업 경영의 경위 :**
  1970년대까지는 두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지 채소 재배.
  1970년대 후반부터 정원수 재배나 주차장 경영.
  2000년 이후 장남의 농업 계승을 계기로 야채 재배 중심의 농업 경영으로 전환.
  2007년 이후 야채 재배로 한정한 경영(다품종 소량생산) 시장 출하에서 직판장으로 전환(수입의 약20～30%가 농업 수입, 그 외 부동산 수입).

다품목 농산물형 경영 특징

①다품목 소량생산(노지에서 26품목、비닐하우스 14품목)
→경지 이용의 고도화(다모작)
→수확시기를 길게하는 기술
→직판량만을 수확하는 작물재배
(많은 수확 노동력이 필요하기때문에 고령자와의 역할 분담 효율화)
→도시주민의 니즈의 반영
(토마토에도 생식용, 조리용 등 용도에 맞게 다수 종류를 재배)
→1년을 내내 출하 가능케함
(사례 농가는 직판 시기:4월부터 12월까지, 주3일부터 5일 판매)
②소상권: 직판소의 상권은 반경 500m이내의 도시주민(선친때부터 알고지내는 주민)
③ 지역과의 강한 결속(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제공하거나 식육, 및 원농(援農)볼런티어의 이용,고령자가 먹거리 전달사(語り部)로 활약)



농상공 연계형의 사례

- **농장규모**: 신전 촌락의 직사각형의 토지 분할된 포장(圃場) 1.5ha중에서 80a를 농지로서 이용함 (그외 정원수·묘목 밭)
- **농업 노동력** :세대주 부부와 후계자 부부 및 농업 연수생(고령자는 농업기술의 전승자로서 역할)
- **농업경영의 경위**:
  1960년대 까지 양봉이, 1975년경까지는 양돈이 농업 경영의 중심
  1980년대가 되면서 두릅을 중심으로 한 야채재배 (JA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이용한 시장 출하)
  1990년대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야채 재배로 전환 (계통 출하로부터 직판장으로 이행): 고령화 대책
  2000년 이후, 무농약·무화학비료의 농산물 판매 (직판장을 활용한 작물재배): 고령화와 부가가치화

농상공 연계형 경영의 특징

①가정내의 분업 체계 확립

세대주·후계자·연수생
→다품목 소량생산의 농업
→무농약·무화학비료의 야채생산
세대주의 처·딸 부부
→ 야채빵 제조시 야채사용
후계자의 처·딸 부부
→농가레스토랑, 빵 판매
후계자 부부·연수생
→직판장의 판매

②적정 규모로 야채를 재배하고 , 빵 생산, 직판장을 운영(규모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소규모의 소형점포를 유지함)

③직판장 상호간 연계를 도모
→개인 직판장에서 농산물 판매를 꾸려감
→공동 마르쉐(장터) 개최(타치가와 역전 광장에서 개최, 타치가와 야채 홍보와 브랜드화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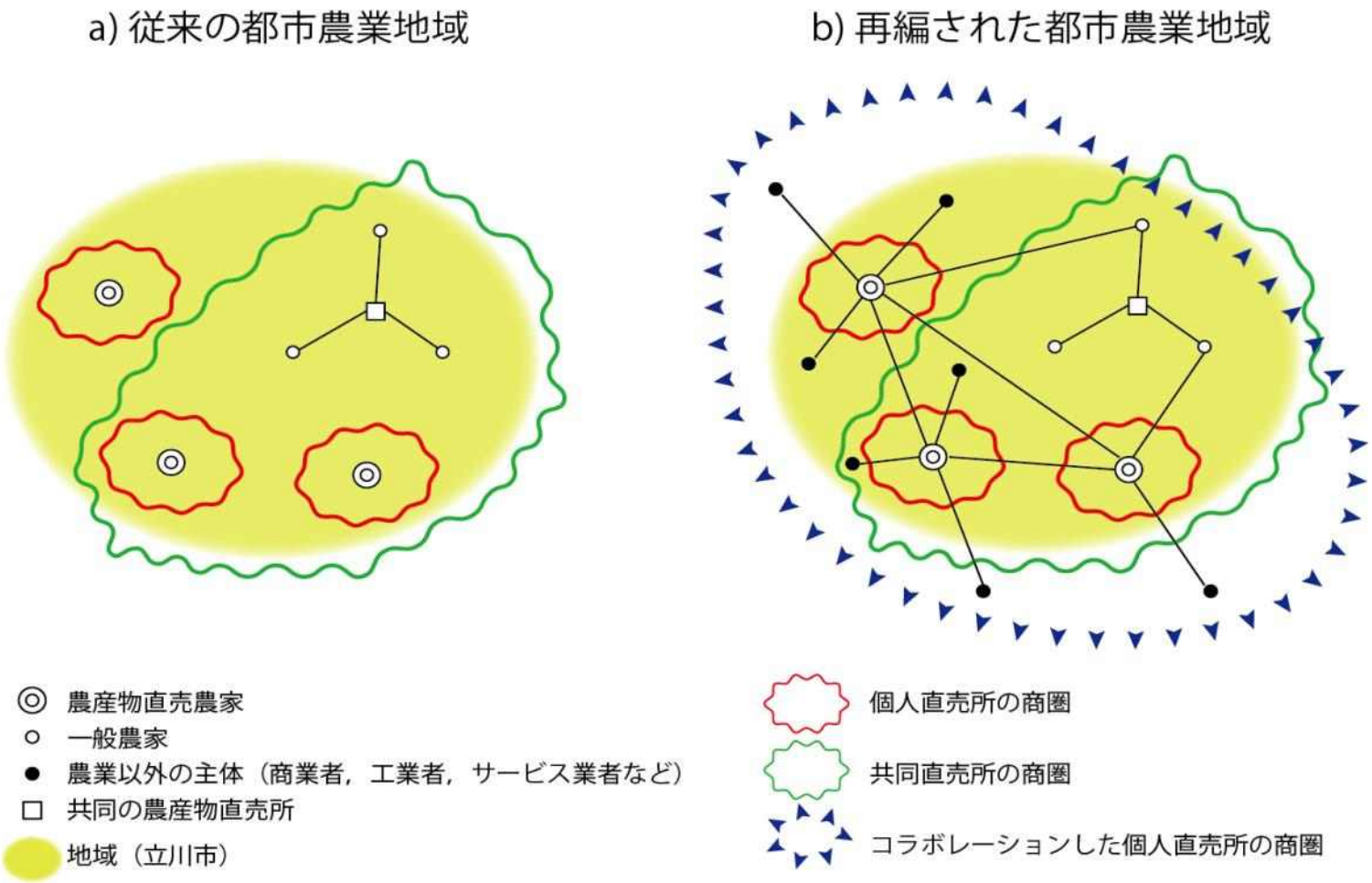
④신규 취농자(농업인)의 육성

④체험·콜라보레이션 형의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직판장과 농산물 체험을 결합한 농장
→젊은 세대가 경영하는 농장
*경영 농지 면적:1.8ha(직판용 농산물 생산 1.0ha와 체험 농장용 0.8ha)
→직판장용의 생산농장 :젊은 세대가 혼자서 다품목 소량생산을 위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 (이웃주민 중 실버 볼런티어의 원농(援農) 제도를 활용)
→ 체험 농장(이웃주민이 농업을 여가나 레크레이션 활동의 하나로 이용) : 56건의 이용자 중 고령자의 이용은 36건(도시 농업이 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여가나 교류의 장이 됨)

↓

도시 농업의 여가 이용이나 원농이 고령자 활동의 지속성에 기여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의 농산물 직판장을 매개한 도시농업지역의 재편

→개별 직판장의 대응들(상품화의 장점이 국지적·분산적)
→개별 직판장의 연계(세대간의 연계、지구 내 혹은 지구간의 연계)
→개별 직판장과 농업 이외의 주체와의 연계(광역적인 연계 및 이종 업종과의 연계)